

멸종 위기 '군산 선유도 흰발농게' 4만마리 이주 작전

개발·도로 확장으로 서식지 파괴 미끼 유인 포획 안전지대로 옮겨

군산시가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의 대규모 이주작전을 펼친다. 서식지인 선유도해수욕장 개발에 앞서 안전지대로 옮기는 작전이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일대 4만7387㎡ 면적의 갯벌에 총 63만여마리의 흰발농게가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큰 서식 규모다.

군산시는 이 중 선유도해수욕장 개발 예정지에 서식하는 4만여마리의 흰발농게를 안전지대로 옮기기로 했다.

해수욕장을 따라 설치된 도로 인접지 1만900여㎡로, 관광객 증가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커져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장과 녹지를 만들려는 곳이다. 이를 위해 환경청에 흰발농게 포획 및 이주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군산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포획은 미끼를 활용

? 흰발농게
달랑갯과 갑각류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분포한다. 해안 개발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수컷의 한쪽 집게다리가 유달리 커 '주먹 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 트랩과 인력을 동원한 채굴 등의 수단이 모두 동원된다.

포획한 흰발농게는 당일 곧바로 인근의 안전한 서식지로 옮겨진다. 이주 작업은 흰발농게의 산란기인 다음 달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주 대책을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공사도 이주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시작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서식지에서 제대로 적응하는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가 선유도해수욕장 개발 예정지에 서식하는 4만여마리의 흰발농게(작은사진)를 안전지대로 옮기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어려운 이웃에 작은 도움이 되길"

고창 '동전 천사' 127만원 기부

익명의 한 중년 남성이 고창군청에 127만여원의 동전을 기부했다. <사진>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창군청 당직실에 네 묶음의 동전 꾸러미를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이 남성은 이름을 묻는 당직자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꾸러미 안에 메모나 편지는 없었고, 모두 127만 8010원이 담겨 있었다.

고창군은 이 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창군 기부계좌로 입금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기부자에 감사하다"며 "이웃 사랑을 보여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태양광발전 제조업체인 (주)미래솔라텍은 지난 16일 정읍 첨단과학산단에서 제조공장 준공식을 했다.

100억대 매출 태양광 제조업체 (주)미래솔라텍 정읍 첨단산단으로 확장 이전... 본격 생산 돌입

태양광 발전시설물 전문 제조업체 (주)미래솔라텍(대표 김계안)이 정읍 첨단과학산단으로 확장 이전했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입주한 (주)미래솔라텍이 지난 16일 준공식을 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당선인,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정상철·이상길 시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해 3월 미래솔라텍과 부지 4058㎡에 10억원 투자 및 10명의 신규 채용을 주

요 내용으로 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미래솔라텍은 지난해 1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올해 공장 확장 이전과 수주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정읍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에서 탄탄하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입주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은 여성과 아이가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태양광 도로안심등을 설치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 여성·아이 안심 귀갓길 조성... 태양광 도로안심등 설치

순창군이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순창군은 야간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창읍 일원 2곳(총 380m 구간)에 태양광 도로안심등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설치 구간은 순창읍 순창10길 215m 구간과 순창11길(신천아파트 뒤편 골목 구간) 160m 구간이다.

태양광 도로안심등은 지면에 부착하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로, 별도의 전기시설이 필요 없이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낮동안 충전된 태양광으로 운용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조명이다. 어두운 골목길의 미관을 개

선하는 효과도 있다.

순창군은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태양광 도로안심등 설치가 필요한 8곳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1주일간 골목길 곳곳마다 야간 현지 출장을 통해 어두운 골목길과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먼저 설치했다.

순창군은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범죄예방용 CCTV,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 LED 로고젝터 설치 등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앞장서 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함께 최근 대두되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안심 보안관 활동(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취약계층 상·하수도로 감면 익산시, 공동주택으로 확대

7월부터 시행키로

익산시는 그동안 단독주택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만 적용했던 상·하수도로 감면 혜택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사는 취약계층 시민도 상수도로는 월 사용량 3t까지, 하수도로는 10t까지 전액 감면받는다.

자녀가 3~5명인 다자녀 가정은 월 상수도 사용량 10t, 6명 이상은 30t까지 무료다. 하수도는 기존과 같이 월 10t이 유지된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3월 말 개정했으며 이달 말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6월부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7월 요금부터 적용한다.

익산시는 앞서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의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와 공동주택 감면 확대 등을 협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상수도 계량기가 통합 관리되는 곳이 있어 감면 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이번에 이를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